



[산업] BMW코리아 7년만에 '순수 전기차' 출시 08



[라이프] CJ제일제당 건강사업 독립 헬스케어 기업 도약 11



메타버스·AI 경계를 넘는다

# 2021 뉴테크놀로지 포럼

2021년 11월 24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놀이 넘어 쇼핑, 금융까지... 현실세계에 스며든 메타버스

메타버스 등장에 생산·소비 문화 변화 금융거래·유통업 등 도입 가속화 개발, 격차, 규제 등 논의 이뤄져야

메타버스는 게임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장될 것이며, 보고 노는 행위에서 창조하고 거래하는 행위로 확장되고, 쇼핑·금융·엔터테인먼트·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인 현대원 교수는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가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개최되는 '제6회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이 같이 밝힐 계획이다.

현 교수는 "초지능의 시대, 메타버스의 세상이 열린다"라는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메타버스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공존하는 가상용

합 기술의 발전과 비접촉 연결의 확산, 놀이와 경험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영향력이 확대된 새로운 세대의 등장, 콘텐츠 생산과 소비 문화의 변화"를 꼽는다.

현 교수는 "새로운 경제 주체로 MZ 세대가 떠올랐는데, 메타버스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에 대한 높은 적응력과 이용능력을 가진 세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메타버스 이용 경험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메타버스 기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메타버스 격차, 중독 및 범죄, 규제 등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박상용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교수는 "메타버스가 제공할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이에 최적화된 등장할 서비스와 콘텐츠에 주목해야 한다"며 "메타버스는 VR(가상현실)이나

AR(증강현실) 기기를 사용하는 데 따른 접근방식과 인터페이스 차이 뿐 아니라 기존과는 매우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어 박외진 아크릴 대표는 "유통업 산업은 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헬스, 뷰티, 병원, 제약, 의료기기, 건강 식품 등 분야를 융합한 산업을 일컫는다"며 "유통업 산업은 이제 본격 출발선에서 있고, 유통업 특화 인공지능 플랫폼의 역할은 '시장 기회'를 신속히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정수 플리토 대표는 "메타버스의 속제는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번역이 된다면 다른 국가의 유저와 소통 뿐 아니라 더 많은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 메타버스 경험도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은

### 2021 뉴테크놀로지 포럼 프로그램 순서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 ~ 14:00	참가등록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40 ~ 14:00)
14:00 ~ 14:20	축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외교통일위원장 김재하 한국메타버스 학회 회장(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조풍연 한국소프트웨어·ICT 총연합회장
	개회사	이정희 메트로경제 상무
14:20 ~ 15:00	기조강연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원장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 방향
15:00 ~ 15:30	강연	박상용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교수 :코로나시대의 비대면과 메타버스
15:30 ~ 16:00		박외진 아크릴 대표(한국인공지능학회 이사진 산업체)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넘어 유통업 시대 열다
16:00 ~ 16:30		이정수 플리토 대표 :메타버스와 언어인공지능
16:30 ~ 17:00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 :메타버스 비긴즈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게임 개발자, 가상인상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2D 크리에이터가 3D 메타버스 시대의 크리에이터로 진화하고 있

다"며 "디지털 휴먼을 활용하고 다양한 IP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 경험을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원장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은 '초지능의 시대, 메타버스의 세상이 열린다'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현

원장은 메타버스에 대한 협의의 정의로 '현실의 나를 대리하는 아바타를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3D 기반의 가상세계를 말하며, 광의의 정의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창조의 세계를 일컫는다고 정의한다.

메타버스 패러다임은 보고 노는 행위에서 창조하고 거래하는 행위로 확장되고,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직접적인 판매를 포함한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될 것이라며 쇼핑, 금융,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즉, 게임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채윤정 기자

### 박상용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교수



박상용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교수는 '코로나시대의 비대면과 메타버스'를 주제로 강연한다. 윌리엄

김슨의 소설 '뉴로맨서'에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인터넷을 통해 구축된 개념적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뜻이 변화한 것처럼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과 기존에 있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포괄하는 다음 세대의 온라인 환경을 뜻하고 있다.

메타버스의 정의보다 메타버스가 제공할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이에 최적화되어 등장할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에 주목해야 한다. 메타버스는 VR 기기나 AR 기기를 사용하는데 따른 접근 방식과 인터페이스의 차이일 뿐인 것이 아니라 기존과는 매우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채윤정 기자

### 박외진

아크릴 대표



박외진 아크릴 대표는 '헬스케어 넘어 유통업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사에서 가

장 빠르게 대중화가 되어야 할 상위 6개 분야 중 병원·의료·헬스케어가 62.1%의 점유율로 1위로 선정돼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매력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제도적 특수성, 진단에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들을 소화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는 점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실은 한계 돌파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통업 산업은 이제 본격 출발선에서 있고, 유통업 특화 인공지능 플랫폼의 역할은 '시장 기회'를 신속히 만드는 것이다. 유통업 비즈니스모델(BM)의 12번째는 바로 유통업 통합 앱 '유통업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완성될 것이다. /채윤정 기자

### 이정수

플리토 대표



이정수 플리토 대표는 '메타버스와 언어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번역의 어려움과 이를 해

결할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메타버스를 위한 특화 번역기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메타버스에 적용될 수 있는 AI 번역 기술을 탐색한다. 많은 산업에서 글로벌 도전이 늘고 있고 특히 전세계 인이 비대면으로 활동하는 메타버스 속에서는 AI 번역의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또한 이번 강연을 통해서 AI 기술이 메타버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메타버스 특화 번역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이목은 '메타버스 번역'에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강연을 통해 메타버스 시대에 AI 번역 기술의 미래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준혁 기자 junhyuk@

###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은 '메타버스 비긴즈'를 주제로 강연한다. 메타버스로 인해 공간적 제약이 사

라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업무 플랫폼과 같은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의 가치를 탐색한다. 메타버스는 개발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군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했다. 로블록스에서 연간 1억 이상 수익을 올리는 개발자들이 250명을 넘었고, 제페토에서도 가상 의류 디자이너가 월 1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AI 기술로 만든 콘텐츠가 메타버스에 구현되면서 양 기술간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 팀장은 강연을 통해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준혁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승점 같아진 전북-울산...K리그1 우승 경쟁 끝까지 간다  
▲ '지메시' 지소연, 2년 연속 FIFA 올해의 여자 선수 후보 선정 /사진 뉴시스

▲ 학폭·팀내 불화...女배구, 올림픽 4강 후광 잃을라  
▲ 봉준근,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취소



▲ '수영천재' 황선우 첫 도전 평영서 고등부 2위 /사진 뉴시스  
▲ 내년 PGA 투어 플레이오프 우승하면 상금이 214억원